

# 2023학년도 최종 합격 수기

## ● 응시정보

응시과목	미술	응시지역	인천	응시횟수	5
임용시험 준비시작 시기	대학원 졸업후	합격 준비기간	5년	시험준비 병행여부	-

## ● 합격점수

1차 합격점수	교육학(교직논술) [ 20 ]점 / 전공(교육과정) [ 52 ]점 / 총점 72 (컷+8)
최종 합격점수	[ 154.8 ]점
가산점	[ 0 ]점 (가산점이 없을 경우 '0' 을 입력해 주세요.)

## ● 합격수기 작성

합격수기 제목 : 포기하지 않는 용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

### ※ PROLOGUE

안녕하세요. 저는 2018 년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임용시험 준비만 올인했던 N 수생으로, 이번에 인천지역으로 지원하여 최종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장수생이라 생각하여 합격수기를 작성한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공부를 지속해야 하는 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신 장수생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일단 저는 작년까지는 서울 지역을 지원했었고, 전공은 위상미술 강의를 수강하며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2021 학년도 서울지역 응시하여 1 차 점수가 71 점으로 합격하였지만 최종에서 뒤집혀 떨어지면서 다시 재도전 하였고 올해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 지역을 바꾸어 인천지역으로 응시하였고, 최종합격을 한 사례입니다. 하던 일을 과감히 그만두고 시험 준비에 올인하게 된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여느 고시생 분들이 그렇듯 평범하면서도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삼수 이후부터는 공부가 길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멘탈붕괴로 인해 공부가 많이 어려웠고 위기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안한 것도 아니고 공부 루틴이 달라진 것도 아니지만 확실히 집중력도 떨어지고 체력적인 한계들로 인해 평균 공부시간이 줄어들어 그로 인한 불안감과 불확실한

미래가 주는 불안함이 N 수생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요소 같습니다.

저는 특히 삼수 때부터 1 차 성적이 올라 그 보다 향상되면 더욱 좋거니와 당시 성적을 유지하기 위한 공부를 유지하면서 삼수 이후에는 공부방법이 특별히 달라짐 없이 삼수 시기의 방법을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며 반복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수 준비 시기의 학습법을 기반으로 한 2022 년 한 해의 준비과정, 마음조절 측면을 중심으로 합격수기를 작성했음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 더 오랜 기간 공부 하시고 합격하신 분들에 제가 비할 바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누구나 그렇듯, 그리고 특히 멘탈이 약해진 저에게는 스스로 느끼기에 누구보다 우여곡절 많은 수험생의 시간을 보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부족함이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순간 순간 '왜 나만 이렇게 가는 길이 어려운가', '왜 나는 행운은 커녕 불운만 함께 할까..' 하며 남들과 비교 하며 좌절도 많이 하고, 때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괜히 화도 나고 야속하기도 하며 시도 때도 없이 변화하는 제 감정을 컨트롤 하며 공부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 저와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는 임고생 분들께 포기하지 않는 용기,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을 한다면 저와 같이 결국 기회를 잡아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는 자신감과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합격수기를 전합니다.

## 1. 1차 시험 학습 방법

### ※교육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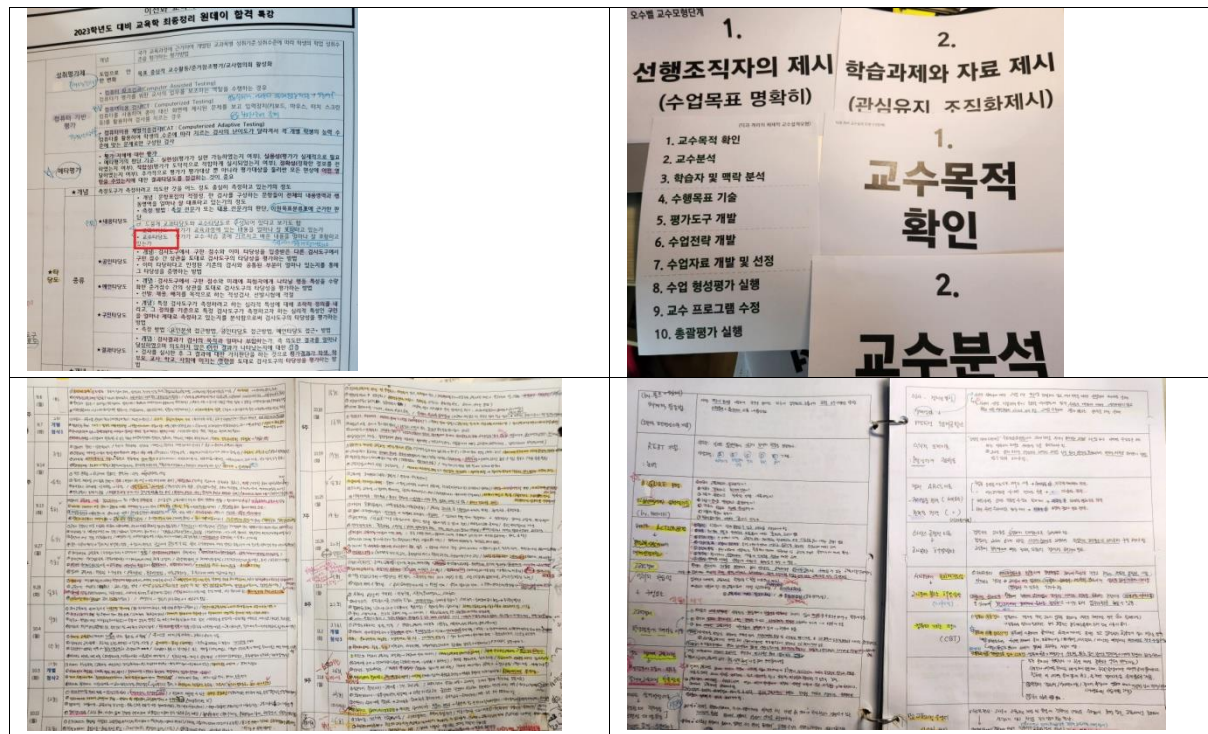
이론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암기를 1 년은 올인하여 공부하였고 당 해 시험 직전에는 어떤 개념이든 입에서 달달 나올 수 있을 만큼 꼼꼼히 암기하고 외웠었습니다. 이후 N 수 시기에는 직접 시간 맞춰 문제 푸는 연습을 위해 마지막 9-11 월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만 직강으로 나갔고, 나머지 기간은 집에서 혼자 기본서나 교육학 서브노트 교재 내용을 회독하며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런 전체 영역 내용의 회독과 암기는 올해는 9 월부터 교육학 책을 처음 다시 꺼내 암기했는데요. 이전에 외워두었던 것이 있었기에 금방금방 다시 내용을 암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느려도 금방 해낸다는 경험과 믿음이 있어 올해는 큰 불안함 없이 소신껏 9 월부터 교육학 공부를 시작하고, 8 월까지는 전공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상반기에 교육학 이론은 완벽히 끝내놓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곤 했는데 저는 시험 직전에 어차피 또 외워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는게 더 잘 맞았어요. 그래서 올해 교육학 만점을 받은 만큼 자신에게 맞는 공부 스타일이나 스케줄을 잘 고민해보시고 소신껏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9 월부터 교육학을 공부하시게 되는 분이 있다면 이전에 한번이라도 완벽히 암기하셨던 교육학 기본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충분히 가능하시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암기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9-11 월 공부의 핵심포인트**는 계속 별도로 기본서 회독을 해가면서 **첫째**, 모의고사 강의 내용을 매일매일 그날 내용은 그날 복습을 하며 암기를 끝내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끝까지 소홀히 놓치지 않고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했던 것이 특히 올해 시험을 만점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아요.

**둘째**, 모든 모의고사마다 어떤 주제를 어떤 식으로 질문하여 문제를 내셨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간단히 다시 정리했고 틀렸던 문제, 암기하고 넘어갔지만 새로운 내용으로 익숙하지 않아 금방 잊어버릴 것 같은 개념 등은 형광펜을 칠해 놓고, 시험 직전에는 그 것들만 쪽 다시 보면서 재 암기 하고 숙지가 되었지 점검하였습니다. 매년 이 9-11 월 시기에만 해도 모든 영역을 다시 한번 다 다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 때만이라도 잘 듣고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적중률도 많으셔서 이와 같은 학습 방법은 시험 때 도움이 많이 되었으니 참고 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셋째**, 그래도 잘 안 외워지는 단계 명칭 등은 아주 크게 한 단계씩 출력하여 벽에 붙여놓고 보고, 외워지면 다른 것을 추가하여 또 붙이고 외웠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정말 좋은 것 같아 저추천드립니다. 물론 포스트잇 활용도 적극적으로 했구요. 여기저기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단계, 순서, 단어들을 붙여놓고 공부하기 싫을 때, 집중이 잘 안될 때 그냥 멍 때리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쪽 둘러보곤 했습니다. 일부로 자주 챙겨 볼수록 더 빨리 오래 머리에 남아요.



**※전공 :**

전공미술은 재수 때부터 쪽 위상미술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고, 처음에는 1년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저는 꽤 성실한 편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빼고는 공부시간이 다소 줄어든 날이 있을 지라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회독하고 공부를 했었고, 하루하루 공부시간은 9월 이전까지는 항상 순 공부시간을 최소한 평균 약 7-8 시간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항상 이 시간이 매일 지켜지는 것은 아는데 저는 하루하루 보다는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실천하는 편이라서 하루 5 시간을 하면 다른 날 더 공부시간을 늘려 평균적인 공부 목표시간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삼수시기의 공부방법이 베이스이므로 이 시기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년 커리큘럼으로 1-11 월까지 강의는 시기마다 다 들었고, 아래 설명의 회독은 추가 회독을 얘기하는 것이며, 강의

복습은 최대한 그 바로 다음날 하려 했습니다. 회독의 양이나 공부시간은 융통성이 있지만 강의 후 복습이 밀린 적은 제 N 수 기간 통틀어 손꼽을 정도로 강의 들은 후의 복습계획 목표만큼은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강의들은 날의 기억도 점차 사라지고 하기 싫어져서 더 미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지연 선생님께서 강좌 첫날 요일별 일주일 단위 공부와 회독 방법 알려주세요. 전 그걸 거의 그대로 따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1, 2 월**은 위상미술 기본서 회독을 매우 꼼꼼하게 천천히 한 바퀴 돌렸습니다.

**3, 4 월**은 위상 심화이론 내용을 꼼꼼히 회독했습니다.

**5, 6 월**은 장지연 선생님의 서술형 기출풀이 반이 운영되는데 위상미술 들으신 모든 수강생이 가장 중요히 생각하고 강추해 드리며, 특히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강의이기 때문에 어떤 강의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때의 문제들을 다시 기본서에서 찾아 내용을 확인하면서 복습하고, 같은 시기에 기본서 회독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잘 외워지지 않거나 헛갈리는 내용들을 따로 빼서 나름의 서브를 5,6,7,8 월에 거쳐 천천히 추가하며 완성합니다. 서브라는 것이 거창하게 전 영역을 요약해 단권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 봐도 헛갈리거나 금방 잊어버려지는 부분, 잘 안 외워지는 부분만 따로 사진을 적거나 적어놓거나 등등 발췌해 놓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은 다 다르고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이 끝까지 계속 잘 안 외워지고 잊어버리는 부분이 계속 또 잊어버려지기 때문에 이것들만 모아 따로 정리를 하고 9,10,11 월 시험 직전까지 계속 이 부분들을 반복 회독하며 잊혀지는 것을 방지했고, 올해 시험 준비까지 늘 같은 패턴으로 반복 확인하며 유용하게 활용한 저의 방법이기도 하니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방법도 추천 드립니다.

**7, 8 월**은 영역별 예상 문제반이라서 영역별로 회독하고 문제 풀고, 틀린 것, 그새 잊혀진 개념들 등을 다시 확인하고 암기하게 되며 이때 다시 심화서 회독이 함께 돌아갑니다.

**9,10,11 월**은 마지막 모고반과 파이널, 마중물 모든 강의를 빠짐없이 들었고 이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회독을 반복합니다. 9 월부터는 아무래도 회독속도가 좀 빨라져 있겠죠~ 그래도 저는 회독속도가 빠른 편이 아닌데요. 그래서 “한번은 꼼꼼하게 천천히, 그 다음 회독은 후루룩 빠르게” 이런 식으로 회독하며 공부했습니다.

처음 위상미술을 수강하게 되었을 때는 워낙 필기나 내용이 방대하여 머리에 집어넣고 이해하며 따라가는데 버겁고 겨우겨우 허덕허덕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해부터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이제야 이해가 가네’ 하는 느낌으로 공부했습니다.

또한 매 강의를 녹음해서 이동하며 끊임없이 들어 선생님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떤 농담을 하셨는지 까지 다 꿰뚫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6 월 모의고사 강의는 8 월이나 9 월 중에 꼭 다시한번 빠르게 배속하여 또 들으며 다시 봅니다. 9,10 월 강의도 꼭 시험 직전 다시 하루를 잡아 훑어보며 시험의 감과 취지파악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끝까지 계속해서 활용했습니다.

N 수 하면서도 재수, 삼수 때 문풀까지 다 다시 확인하고 보았기 때문에 문제를 받으면 ‘아 이거 전에 그 문제랑 비슷한 취지파악 문제이구나’ 하면서 늘 떠오르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런 이유로 제가 모의고사 점수는 항상 석차가 상위권을 유지하였음에도 저에게는 위상 샘들의 문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점수가 잘 나오는 거 같다는 불안감으로 늘 스스로를 잘 못 믿고 그 점수에 전혀 연연하거나 의미를 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이전 몇 년 문제들까지 거의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마지막 마중물 문제는 그 많은 개수의 문제들이 모두 한번

이상씩 보았던 익숙한 문제들이라 정말 기억 상기용의 복습 차원으로 휘리릭 돌리며 답과 취지파악을 상기하는 정도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시험 직전 공부가 허덕임 없이 오히려 평소와 똑같이, 끝까지 늘 같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시험에 응시하러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의 1 월부터의 공부 스케줄과 방법은 삼수 때 기준이고, 사실 올해는 5 월까지 기간제 생활을 하면서 6 월부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그로 인해 다시 제 실력만큼 원상복귀하기까지 객관적인 회독 시간이 부족하여 이를 채워가기 위해 마음조절하며 꾸준히 회독하는 데 힘을 쏟았고, 10 월 중순 정도에야 원래의 제 기준점의 공부 정도까지 점차 회복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상미술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강의 활용법과 **전공 공부의 핵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생님들의 강의를 녹음해서 이동 시, 산책 중 등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며 복습하는 것입니다. 취약부분은 정말 계속 들어가며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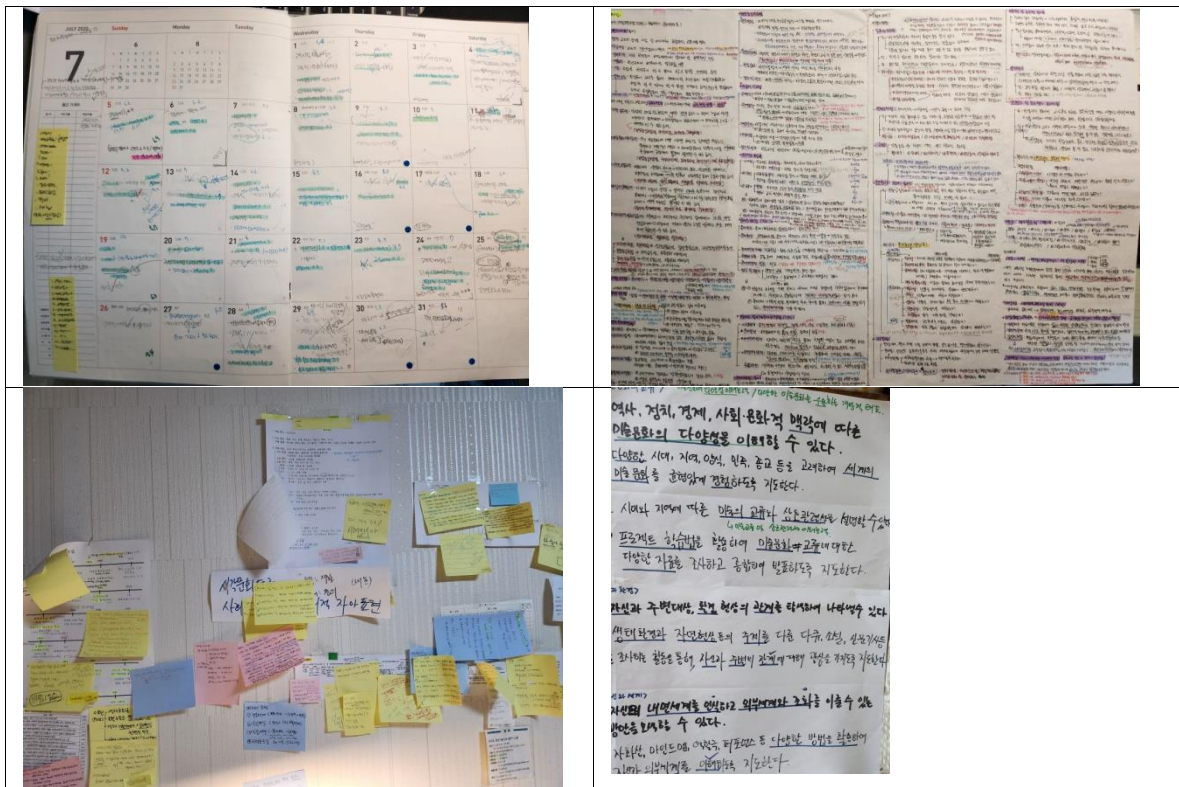
특히 미교론, 서미사, 동미사, 한미사와 같은 역사 영역은 교재 없이 듣고만 있어도 흐름이 쭉 이어지며, 이런 흐름 속 여러 설명들을 곁들여 주시기 때문에 반복듣기를 활용하면 이해도 빠르고 샘들께서 곁들여 설명하신 이야기들도 빠짐없이 기억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생각보다 시험에 이렇게 곁들여 설명해주신 부분이라 필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은근이 출제가 되더라구요. 또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혼자 빠르게 회독이 어려울 때 강의를 높은 배속으로 올려 들으면서 회독하면 기억도 금방 떠오르고 이해가 더 되는 부분도 생기고 놓치는 부분 없이 회독이 가능하여 여러모로 100 프로 활용하면 좋을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초수나 재수 샘들은 꼭 직강을 나가셔서 질문시간을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작년부터는 N 수생이라 수업을 여러 번 들어 질문이 줄면서 인강을 활용하고, 9 월부터는 시간 맞춰서 다른 분들과 함께 문제 푸는 시험 날의 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꼭 직강을 나갔는데요. 솔직히 위상미술을 처음 접하거나 아직 내용 숙지나 이해가 부족하신 상태라면 무조건 직강을 나가서 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강의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지연 선생님의 강의들은 강의시간이 끝난 수 다른 분들의 질문과 개별 첨삭 과정을 옆에서 듣는 시간 속에서 추가적으로 알게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강의시간에는 수업시간 한계 상 다양한 도판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그 특징을 다 알려주시기 어렵지만 수업이 끝난 후 질문시간에는 비슷해 보이는 도판들이 비교될 수 있는 포인트들과 동양화 준법, 묘법 등을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도록 정말 명쾌하게 도판을 관찰하고 읽어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장지연 샘의 1:1 대면첨삭도 오개념, 글 쓰는 방식 등을 잡아주시면서 추가 설명들을 더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더 폭넓고 깊은 이해를 이끌어 내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위상미술은 위상 샘이나 장지연 샘 모두 강의를 끝나면 늦으면 정말 밤 9 시까지도 질문을 다 받아주시면서 수강생 오개념이나 사소한 질문들까지 다 바로잡아주시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셋째**, 기본서, 심화이론에서부터 마지막 마중물 강의 자료까지 모든 자료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꼭 다 확인하시고 챙겨서 함께 회독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올해도 마중물 문제에서도 출제가 꽤 되었어요. 물론 평소에 그런 부분들을 안 짚어 주시는 건 아니지만 기본서에 있는데 심화에 없는 부분도 있고, 모의고사 등의 문제로 다루시지 않은 작가들이 마중물 문제에 있기도 하는 등등 다양한 자료들로 전 영역을 구멍 없이 다루어 주시는 만큼 이 추가되는 모든 자료를 계속 함께 추가하시면서 회독 계획을 세우시고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모든 내용을 다 단권화를 할 수도 없고 분명 그 많은 개념들을 배워가며 모두 빠짐없이 한 곳에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단권화를 하지 않아요. 괜히 시간만 아까운 거 같아서 그냥 모든 자료를 활용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반복 회독을 합니다.

**넷째,** 마지막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본인 스스로가 잘 안 외워지거나 자꾸 잊어버리거나 주기적인 잦은 반복이 필요한 부분들은 꼭 따로 빼서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시험 당일 날도 이 자료만 가져갔어요. 영역은 “교육과정, 서미, 감상비평미학, 표현과 용어, 공예와 판화, 한미와 한미근대, 동미, 미교론, 디자인, 서예, 취지파악” 이렇게 11 개로 나누어 한눈에 볼 수 있게 A4 용지를 이어 붙여 쪽 정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활용했습니다. 정말 해가 지나도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참 언제나 불안불안하고 늘 또 까먹고 그래요. 근데 그때 마다 이 자료 저 자료 찾아들어가서 확인하기가 나중에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 쉽지 않고, 또 한눈에 쪽 안보면 잊어버렸는지, 그게 어떤 거였는지조차 잊을 때도 있어서 재확인을 못 하고 안일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포스트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잘 외워지지 않는 것은 제방 곳곳에 크게 크게 붙여놓았습니다. 오며 가며 일부로 시선을 두었고, 시험 전날은 이렇게 붙어있던 포스트잇을 하나씩 때면서 다시 확인하고 그래도 불안한 부분들은 공책에 쪽 붙여서 이것도 시험장에 가져가서 쉬는 시간에 넘기면서 쪽 한번 더 보았습니다.



## 2. 2차 시험 학습 방법

### 1) 교직적성 심층면접

면접준비는 스테디는 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작년 1 차 합격 이후 2 차 시험에서의 저의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꼼꼼히 분석했었고, 따라서 스테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올해는

2차 시험 준비는 전부 스터디 없이 혼자 공부하였습니다.

교재를 회독하고 중요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였고, 교육학 특강 강의를 한번 다녀온 후 뽑아주신 예상문제 페이지의 모든 문제에 저만의 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은 올해 평가원 문제로 바뀌면서 조금 수월한 준비가 가능하기도 했고, 따라서 평가원 문제 특성의 위주의 질문들을 추가로 준비하여 교직원, 학생관, 장단점, 노력 등등의 내용들을 사례를 모두 만들어놓고 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이슈 주제들을 다룬 예상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답변을 더 정교하게 구성했었고요. 그리고 모든 답이 다르기 보다는 몇 가지 질문에 여기저기 써먹을 수 있는 만능 답들로 많이 구성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면접준비의 핵심포인트**는 많은 사람들이 2차는 스터디를 꼭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시는 데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일단 관련 내용 지식이 머리 속에 꼭 다 들어있을 수 있게 공부와 암기가 우선이구요. 연습은 혼자 거울보며 톡치면 나올 수 있게 계속 중얼중얼 암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는 자신의 자세, 태도 등을 점검받는 용이라고 생각해서 직접 촬영해서 확인해보고 수정하는 과정들을 거친다면 큰 문제없이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수업실연 준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2) 교수학습지도안/수업실연

인천지역은 지도안이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도안을 꼼꼼히 연습하고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빠짐없는 실연 구성을 위해 지도안은 꼼꼼히 써보면서 연습하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수업 실연 역시 스터디는 하지 않았고, 혼자 준비하고 막판에 스터디룸에 가서 혼자 영상을 찍어보고 문제점을 수정하며 다시 찍어보고 확인하기를 반복하며 스스로 점검하고 수정하며 준비했습니다. 위상미술에서도 현직선생님들을 모시고 수업실연 피드백 지원을 해주실 때를 활용하여 직접 와서 한번 점검 받았습니다. 이걸 현직 선생님들의 의미 있는 피드백과 다른 분들의 좋은 수업 소스가 있다면 참고도 할 수 있는 기회이니 만큼 많이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수업실연은 **첫째**, 어떤 문제가 나와도 20분 내에 수업을 구성하여 실연할 수 있도록 기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확인했습니다. **둘째**, 대표적인 교수법들은 모두 그 단계들을 다시 한번 정확히 숙지하여 그 단계들에 들어가야 할 활동들을 주제마다 나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직접 쓰진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기출문제들을 혼자 시뮬레이션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20분이라는 수업실연의 구조를 명확하게 짜두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 구조에 끼워 맞춰 시간 안에 실연을 마칠 수 있는 연습을 가장 애써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저는 동기유발 쪽이 늘어서 앞부분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업실연을 시간 안에 모두 마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모든 조건을 맞춰 끝낼 수 있도록 시간을 계산해두고 어떻게든 셋팅한 시간은 꼭 지키는데 유념하며 준비했습니다.

## 3) 실기

인천의 실기종목은 소묘와 자기 전공선택 입니다. 저는 소묘는 인천지역에서, 전공인 디자인은 노량진 소재의 실기학원을 다니며 준비하였고, 저는 실기가 약해서 소묘는 평달에 다니면서 미리 준비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 3. 합격을 결정 짓게 해 준 나만의 공부 방법이나 꿀팁

저는 장수생이었다 보니 무엇보다 멘탈과 체력관리가 가장 합격을 방해하는 요소이자 합격을 결정짓게 해준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7 월까지는 한달에 한번씩은 꼭 동네 낮은 산이지만 등산을 챙겨가며 체력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멘탈관리는 정말 무엇보다 힘들었는데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기왕 하기로 했으니 좀 만 버티자. 오늘만 버티자.'만 외우면서 오늘 계획한 일만 마무리 짓는 것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이 시간을 위해 나를 응원해주고 조력자가 되주신 분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잡았고, 장지연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주문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을 매일 공부하기 전, 매 모의고사 보기 전, 그리고 너무 집중이 안될 때, 그리고 우울감이 몰려오는 순간, 자기 전마다 주문처럼 되내이며 멘탈관리를 했습니다. 장수생의 합격은 이 멘탈관리와 체력관리가 당락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더불어 힘들어도 이런 멘탈을 꼭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계획과 목표한 바의 스스로 한 최소한의 약속은 꼭 지키는 절실한 성실함이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이야기가 혼자인 것 같고 힘든 시기가 왔음을 느끼고 있을 장수 임고생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 4. 선생님이 당신의 합격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위상미술의 장지연선생님과 위상선생님은 저의 합격에 있어 가족의 지지와 응원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신 존재이십니다. 미술 임용 지식, 학습 방법과 같은 학습적인 영역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N 수생으로 오래 보었는데도 늘 한결 같이 수강생들을 진심으로 아끼시고 수강생들의 합격을 수강생의 마음에서 지지해주시고 정서적으로도 응원해주시는 멋진 분들이십니다. 객관적인 파악과 피드백, 따뜻한 격려를 오가며 어쩌면 각자의 인생에 가장 힘든 시간, 가장 지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강생들에게 희망이자 스승이자 이모, 삼촌과 같은 존재로, 또 늘 연구하시고 끊임없이 미술임용의 모든 것을 고민하시는 임용 전문가로서 저희와 그 어려운 길을 손잡고 함께 가주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 힘든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기에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 5. 희소 학원이 당신의 합격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희소 학원은 일단 별칭 금강이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선생님들께서 정말 친절하십니다. 보통은 직원 선생님들은 수강생 한명 한명을 잘 모르는 일이 많은데 희소 학원은 수강생 한명 한명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파악하시며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수강생 입장에서 최대한 도움을 주시기 위한 방향으로 함께 고민해주시고 도움주시는 것 같아요. 환경, 시설, 시스템상의 불편함 등을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가능한 범위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항상 도와주십니다. 학원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 6.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저희가 준비하는 임용고시와 같은 시험은 본인의 실력이 분명 뒷받침되어야겠지만 어쩔 수 없는 운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작용하는 것 같아요. '누구는 공부를 잘해서 일찍 합격하고, 나



는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늦는 건가, 나는 안될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소신껏 꿈을 위한 도전에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제가 남들보다 출중해서 합격한 것도 아니고 또 남들보다 못해서 장수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공부기간이 늘면서 자존감이 참 많이 낮아지면서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참 많이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언제나 빠그덕거리고 또 웬지 긍정적인 결과가 나를 향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시험이 전부는 아닌 만큼 부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기 자신의 도전의 과정을 실패로 정의하며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고 힘내셔서 모든 분들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